



금융감독원

# **보 도 자 료**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 행복하게

보도	2024.12.11.(수) 조간	배포	2024.12.10.(화)	
담당부서	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제도팀	책임자	국 장	임권순 (02-3145-6700)
		담당자	팀 장	심여희 (02-3145-6717)

## **'24.2분기 공모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 및 향후 계획**

-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가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단계적·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. -

### **< 점검 결과 요약 >**

□ '24.2분기 중 공모펀드의 국내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\*을 점검한 결과,

\* '24.2분기 영업보고서를 통해 17개 공모운용사가 공시한 62개 법인·251개 안건 (운용사별 중복)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

- 의결권 행사율은 92.5%였으며 반대율\*도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, 여전히 주요 연금\*\* 등에 비해 수탁자 책임 이행이 미흡한 측면

\* ('23.2Q) 0.7% → (3Q) 0.6% → (4Q) 2.7% → ('24.1Q) 5.0% → (2Q) 5.7%

\*\* '23년 행사율 및 반대율 : (국민연금) 99.8%, 21.8% (공무원연금) 93.9%, 11.4%

- 특히, 제반 인프라가 갖추어진 공모운용사로 점검대상이 한정된 점, 정기주총 시즌 대비 업무량이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,

- 각 운용사는 '25.1분기 정기주총 시즌을 맞이하여 펀드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

□ 금융감독원은 '25년 중 의결권 행사 비교·공시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투자자가 성실한 수탁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

- 의결권 행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현황 공개를 추진하는 등 운용사가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의 선도자로 자리매김 하도록 단계적,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

## I. 점검 배경

- '24.8월 금융감독원이 '24.1분기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·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
  - 의결권 행사사유 등의 형식적 기재 및 합리적 사유없는 의결권 불행사 등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되어 철저한 이행을 당부
- 이에 자산운용사의 '24.2분기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하여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의 개선 여부를 평가

## II. 점검 내용

### 1 '24.2분기 공모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

- '24.2분기 중 공모펀드의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92.5%, 반대 의견 행사율은 5.7%

※ '23년 주요 연금의 행사율 및 반대율 : (국민연금) 99.8% 21.8% (공무원연금) 93.9% 11.4%

- 주요 의결안건\*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(91.7%)은 낮은 지분율을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다소 저조했으나

\* 법§87③에 열거된 합병, 영업 양수·도, 임원 임면, 정관변경 등

- 반대율(7.9%)의 경우 임원 선임, 정관 변경 등 주주권익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에 대해 반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 '24.2분기 공모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 (단위 : 건, %) >

구분	주요 의결 안건		일반 안건		모든 안건	
	건수	(비율)*	건수	(비율)*	건수	(비율)*
행사	93	(91.7)	149	(98.5)	242	(92.5)
반대	7	(7.9)	0	(0.0)	7	(5.7)
불행사	6	(8.3)	3	(1.5)	9	(7.5)
합계	99	-	152	-	251	-

\*  $\sum(\text{각 운용사 행사율} \cdot \text{반대율} \cdot \text{불행사율}) / \text{운용사수}$

## <참고> 주요 의결 안건에 대한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사례

■ 동일 안건에 대해 운용사별로 의결권 행사 방향이 다른 경우도 존재

- **(임원임면)** A사는 내부지침에 따라서 6년 이상 재임한 감사 선임에 반대하였으나, B사는 찬성
- **(정관변경)** C사는 정관에 열거되지 않은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가 주주권의 침해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였으나, D사는 찬성

< 세부 안건 별 의결권 행사 현황 (단위 : 건, %) >

구분	주요 안건						일반안건	
	①임원임면		②정관변경		③분할			
	건수	(비율)*	건수	(비율)*	건수	(비율)*	건수	(비율)*
행사	81	(91.1)	10	(100.0)	2	(100.0)	149	(98.5)
반대	5	(4.5)	1	(14.3)	1	(50.0)	0	(0.0)
불행사	6	(8.9)	0	(0.0)	0	(0.0)	3	(1.5)
합 계	87	-	10	-	2	-	152	-

\*  $\sum(\text{각 운용사 행사율} \cdot \text{반대율} \cdot \text{불행사율}) / \text{운용사수}$

## 2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

□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14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99.3%였으며,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반대율은 6.9%

- 동 코드를 채택하지 않은 3개 운용사\*의 경우 의결권 행사율 및 반대율이 각각 60.9% 및 0% 수준

\* AK파트너스, 유경PSG, 이지스자산운용 ('24.2분기 영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준)

< '24.2분기 코드 채택 여부에 따른 의결권 행사 현황 (단위 : 건, %) >

구분	코드 채택 14개사		코드 미채택 3개사		전체	
	건수	(비율)*	건수	(비율)*	건수	(비율)*
행사	211	(99.3)	31	(60.9)	242	(92.5)
반대	7	(6.9)	0	(0.0)	7	(5.7)
불행사	4	(0.7)	5	(39.1)	9	(7.5)
합계	215	-	36	-	251	-

\*  $\sum(\text{각 운용사 행사율} \cdot \text{반대율} \cdot \text{불행사율}) / \text{운용사수}$

## 3

## 운용사별 평균 의결권 행사 현황

- '24.2분기 중 의결권 행사율은 AK파트너스(0.0%), 이지스(82.6%) 등 스튜어드십 코드 미채택 운용사에서 낮게 나타났으며
- 교보악사(50.0%), 한국투자밸류(20.0%), 한국투자신탁(14.3%) 등의 경우 전체 안건 수가 적어 반대율이 높게 나타난 측면

< '24.2분기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현황 (단위: 개사, 건, %) >

운용사명	스튜어드십 코드 가입	안건 수	행사율*	찬성률*	반대율*	중립률*
KB**	○	34	94.1	78.1	3.1	18.8
교보악사	○	2	100.0	50.0	50.0	0.0
다올	○	9	100.0	100.0	0.0	0.0
미래에셋**	○	50	96.0	85.4	2.1	12.5
삼성	○	20	100.0	100.0	0.0	0.0
신영	○	7	100.0	42.9	0.0	57.1
신한	○	39	100.0	97.4	2.6	0.0
NH아문디	○	1	100.0	100.0	0.0	0.0
유경PSG	x	12	100.0	100.0	0.0	0.0
이지스	x	23	82.6	100.0	0.0	0.0
키움	○	12	100.0	100.0	0.0	0.0
AK파트너스	x	1	0.0	-	-	-
플러스	○	1	100.0	100.0	0.0	0.0
한국투자밸류	○	5	100.0	80.0	20.0	0.0
한국투자신탁	○	7	100.0	85.7	14.3	0.0
한화	○	23	100.0	95.7	4.3	0.0
현대인베스트먼트	○	5	100.0	100.0	0.0	0.0
합계	14	251	96.4	90.5	2.9	6.6
운용사 단순평균*	-	14.8	(92.5)	(83.2)	(5.7)	(5.2)

\*  $\sum(\text{각 운용사 행사율} \cdot \text{찬성율} \cdot \text{반대율} \cdot \text{중립율}) / \text{운용사수}$

\*\* KB, 미래에셋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임원을 선임하는 복수 안건이 상정되자 선임에 반대하는 임원에 대해 착오로 의결권 불행사

### Ⅲ. 평가 의견 및 향후 계획

#### 1

#### 평가 의견

- '24.2분기 공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율은 92.5%로 반대율\*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, 여전히 주요 연금\*\* 등에 비해 미흡한 측면

\* ('23.2Q) 0.7% → (3Q) 0.6% → (4Q) 2.7% → ('24.1Q) 5.0% → (2Q) 5.7%

\*\* '23년 행사율 및 반대율 : (국민연금) 99.8%, 21.8% (공무원연금) 93.9%, 11.4%

- 특히, 제반 인프라가 갖추어진 공모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로 정기주총 시즌 대비 업무량이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
  - 각 운용사는 '25.1분기 정기주총 시즌을 맞이하여 펀드 의결권이 충실히 행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
- 아울러, 최근 사모펀드, 행동주의 펀드 등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이슈가 됨에 따라 '25.1분기 정기 주총시즌에서 펀드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

#### 2

####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'25년 중 분기별·운용사별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·공시 시스템을 마련하여 투자자의 성실한 수탁자 판단을 지원하는 한편
  - 의결권 행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현황 공개를 추진하는 등 운용사가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의 선도자로 자리매김 하도록 단계적,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